국내금융 뉴스

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정부 대응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.3% 상승하여 8월 5.3% 보다 1.0%p 하락하였으나,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.

- 고춧가루를 포함한 기타 농산물과 금반지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으며, 집세도 전년동기 대비 4.7%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.
- 반면, 채소·과실류의 경우 추석 이후 수요가 감소하고 기후여건 개선과 출하시기 도래 등으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으며, 9월 SK 텔레콤의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인하와 무료문자 서비스 제공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함.

■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과 비교하여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, 기상여건 변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함.

-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기상여건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하락세가 예상되고, 향후 KT와 LG 유플러스의 이동전화요금 인하도 예정되어 있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.
- 단, 유럽재정위기,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.

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여전히 가격이 높은 일부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의 경우 수급 및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.

- 여전히 가격이 높은 건고추의 경우 생산증대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,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당관세물량 조기 도입도 추진함.

- 환율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비축과 할당관세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임.

(2011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, 기재부, 10/4)